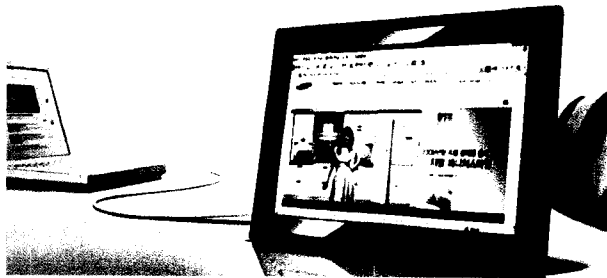


### 삼성전자, 다목적 USB파워 미니 모니터 출시



삼성전자가 USB케이블 연결만으로 전원과 그래픽 신호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USB파워 미니 LCD 모니터(모델명 : U70)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USB파워 미니 LCD 모니터 'U70'은 17cm(7인치) 크기로, 별도의 전원 케이블 없이 USB케이블을 PC의 USB 단자와 연결만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원과 그래픽 신호가 처리되는 독특한 제품이다.

USB파워 미니 LCD 모니터 U70은 노트북, 데스크톱 PC 등에 연결해 각종 문서작업, 자료조회를 하면서도 화상 채팅과 화상영어교육,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재생기나 메모장,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편리한 듀얼 모니터 환경을 연출한다.

특히 17cm의 작은 크기로 노트북과 함께 가방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U70은 모니터는 한 장소에 고정시키고 사용한다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 모니터도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창조적 발상의 제품으로, 노트북 사용자들의 'wish list 1번'으로 사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00 x 480의 해상도를 구현하는 USB파워 미니 LCD 모니터 U70은 삼성전자 고유의 유비싱크(UbiSync)기능

을 적용,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한 번 설치하면 이후 PC와 모니터를 USB로 연결할 때 마다 자동으로 해상도가 설정된다.

또한 같이 제공되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로 또는 세로로 모니터 화면을 쉽게 전환할 수 있어 프로그램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게다가 5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므로 하루 12시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달 전력 소비량이 최대 1.8KW에 불과해 전기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유재영 상무는 "이번에 출시한 USB파워 미니 LCD 모니터 U70은 모니터는 한 장소에 고정시키고 사용한다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해 모니터도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품"이라며, "노트PC 전용 모니터 랩핏, USB파워 미니 모니터 등 향후에도 기존의 발상을 뛰어 넘는 창조적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모니터 사용자들에게 싱크마스터의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삼성전자, 'MWC 2009'에서 프리미엄 폴더치폰 라인업 공개



삼성전자가 16일부터 1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obile World Congress 2009' (이하 MWC 2009)에 참가해 터치스크린폰 풀 라인업을 공개하는 등 최신 휴대폰과 첨단 통신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Get In Touch With Samsung Mobile'을 주제로 60평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해 'Ultra TOUCH'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자를 겨냥한 프리미엄 터치스크린폰들을 전시한다.

또한 삼성 휴대폰 사용자들이 좀더 다양한 모바일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시스템, 콘텐츠/서비스 등 다양한 모바일 토탈 솔루션을 선보인다. 'MWC 2009'은 GSM 통신기술 분야 국제협력기구인 GSMA(GSM Association)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 통신전시회로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 1,200여개 통신 업체가 참가해 첨단 기술과 신제품들의 치열한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 □ 터치스크린폰 풀 라인업 공개

삼성전자는 6대 제품 카테고리 가운데 스타일, 멀티미디어, 인포테인먼트 등 3개 카테고리에 올 상반기 플래그십 모델로 터치스크린폰을 선정, 전시회에서 전격 공개했다.

'Ultra TOUCH(S8300)'는 2009년 글로벌 전략 모델로,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 차세대 UI 등 프리미엄 라인업인 '울트라에디션' 시리즈의 첫 번째 풀터치스크린폰이다.

자연색에 가까워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AMOLED 디스플레이, 디지털카메라급인 800만 화소, 차세대 3D UI인 TouchWiz, 사용 편의성을 위한 하이브리드 입력

(터치스크린+키패드) 등을 장착했다. 12.7mm 슬림한 풀터치슬라이드 타입에 특수강화유리,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소재 채용, 슬라이드 뒷면을 깔끔하게 처리한 실키백(Silky-back) 디자인 등도 돋보인다.

지난해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풀터치스크린 스마트폰 OMNIA를 업그레이드한 'OMNIAHD(I8910)'와 터치스크린 뮤직폰 라인업인 비트에디션 시리즈 'BeatDJ(M7600)', 'BeatDISC(M6710)'도 큰 주목을 받을 제품들이다.

'OMNIAHD'는 세계 최대 크기인 3.7인치 AMOLED를 탑재 한데 이어 세계 최초로 720P 수준의 HD급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8백만 화소 카메라, HD급 재생(내부 : QHD, 외부 : HD) 등 첨단 기능을 두루 탑재해 옴니아 돌풍을 이어 갈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 뮤직폰 라인업인 「비트 에디션(the Beat edition ™)」의 풀터치 스크린 모델인 'BeatDJ(M7600)', 'BeatDISC(M6710)' 등 2종은 감쪽한 디자인에 클럽DJ들이 사용하는 턴테이블 모양의 뮤직폰에 특화된 'DISC UI'가 특징이다.

#### □ 다양한 모바일 토탈 솔루션 시연

삼성전자는 전시회에서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해 기술지원과 정보공유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삼성 모바일 이노베이터(Samsung Mobile Innovator)'의 추가 플랫폼 지원을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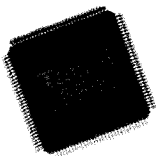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심비안 플랫폼 지원에 이어 2월부터는 MS의 윈도우모바일과 전 세계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바 플랫폼 2개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 모바일 이노베이터를 통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자와 휴대폰 사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삼성 애플리케이션즈 스토어(Samsung Applications Store)'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의 제목, 가수 등의 정보를 찾아 주는 뮤직 서비스, 3D의 보행자 맵을 지원하는 네비게이션 LBS서비스, Facebook, MySpace, Flickr, Picasa 등 세계 유명사이트로 손쉽게 사진,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Share pix 서비스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도 선보인다.

또한, 4G 통신 기술의 양대 축인 모바일 와이맥스와 LTE(Long Term Evolution) 기술 관련 다양한 시스템과 단말기를 선보이며 차세대 이동통신 주도 업체로서 위상을 과시한다. 신종균 삼성전자 DMC부문 무선사업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휴대폰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삼성전자만의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의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것은 물론,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들멀티미디어, 영상·음성 구현 IC 전문업체 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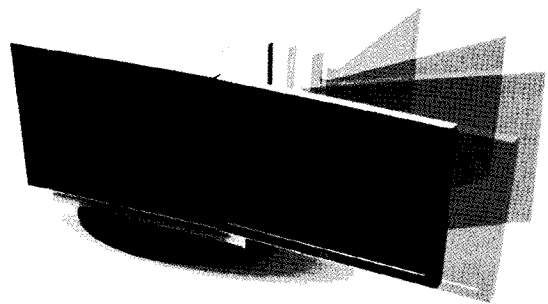
오디오IC를 전문으로 개발해 온 다들멀티미디어(대표 정연홍)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DVD 플레이어용 영상 IC를 올해 초 출시했다. 또 휴대기기에서 영상과 음성을 구현하는 범용 멀티미디어IC를 1분기내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뜻을 모아 지난 2000년 설립한 다들멀티미디어는 지난해까지 줄곧 MP3 CD플레이어나 휴대용 오디오 등 옵티컬오디오 및 MP3디코딩IC 분야에 주력해왔다. 회사는 현재 전세계 포터블 오디오IC 분야 선두업체로 일본 산요 등 주요 기업에 IP(지적자산)을 라이선스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회사는 올해를 사업다각화의 원년으로 삼고 기존 오디오IC에서 영상 분야로 제품을 확장해 진정한 멀티미디어IC 전문업체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그 첫 단추로 올해초부터 DVD와 Divx 디코딩 기능을 갖춘 영상구동칩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또 후속제품으로 고화질 구현을 위한 업스케일링 기능과 HDMI, 블루투스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후속 제품을 준비 중이다.

다들멀티미디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상반기 중 PMP나 내비게이션, 디지털액자와 같은 휴대기기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멀티미디어IC와 차세대 광학매체인 블루레이디스크(BD)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 갈 예정이다.

**(주)비티씨정보통신, 43.17cm(17형) LCD모니터 제우스 170DS'를 출시**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비티씨정보통신(대표 김성기)은 16

일 고객 상담이 필요한 업종에 적합한 43.17cm(17형) LCD모니터 제우스 170DS'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금융권 및 B2B시장 공략강화를 위해 17형 듀얼모니터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제품은 상하좌우 자유자재로 모니터 화면의 이동이 가능한 트랜스폼 스탠드를 적용, 고객들과 1:1 상담이나 회의용으로 적합해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화면을 돌리지 않고도 주 화면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는 PIP(Picture In Picture)기능을 이용하여 상담자는 고객 화면에 어떤 내용이 표시되는지 알 수 있다. 신제품은 12ms 응답속도와 500:1의 명암비, 300칸셀라의 밝기와 스테레오 스피커, USB 2포트를 기본으로 내장했다. 디자인은 고광택의 화이트블랙의 색상을 적용하여 심플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김성기 대표는 "듀얼모니터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고객과 최종 접점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며, 더 넓게는 관리자 또는 CEO, 새로운 제품에 흥미를 느끼는 얼리어답터 등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일반소비자 시장 뿐 아니라 기업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신성장동력기업 성호전자



성호전자(1,270원 30 -2.3%)(대표 박환우, www.sungho.net)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필름콘덴서

및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고체콘덴서와 PSU 전문 제조업체로 중국 광둥성과 산둥성에 현지법인과 공장을 운영하며 마켓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PDP TV, LCD TV, IP-SET BOX 등 디지털 디스플레이 국제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지배력 상승을 바탕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콘덴서 시장과 DMB, 와이브로 등 차세대 통신기기 PSU 시장을 선점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성호전자는 우선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태양광 AC 모듈을 위한 모듈집약형 전력변환시스템 'BIPV인버터' 개발 후 양산에 착수했다. 고효율, 고신뢰성, 고집적도 전력변환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BIPV용 태양광 AC 모듈에 대한 최적의 전력변환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산화 기술로 태양광 AC 모듈에 대한 전력변환시스템 시장의 점유율 및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하이브리드 콘덴서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SARC의 상품화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LPG 및 가솔린차 외에 일반 전자산업, 조선, 항공, 국방, 냉·난방기 등의 미래형 산업의 개발에 맞춘 콘덴서를 제작은 물론 매출 및 제조원가 절감에서 각각 10% 이상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사업부를 통해 에너지 절감, 안정성, 방수형 등의 특성을 지닌 'LED 실내조명용 전원공급장치'를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 장치는 긴 수명과 일정한 광속유지, 양질의 쾌적한 조명 등의 장점으로 시장출시와 함께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해 경제침체에 중소기업의 새로운 R&D 롤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후 개발, 양산에 발맞춰 성호전자는 각종 기술, 제품 세

미나를 통해 관련제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며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제품들은 양산시점에서 해외시장에서 월등한 성능사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하에 해외영업팀을 활용해 점증적으로 해외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주)아이트로닉스, 하이패스 단말기 'IF디자인상' 수상**



지난해 12월 국내 하이패스 단말기 시장은 독일에서 날아온 기쁜 소식으로 술렁였다. 국내에서 개발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처음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디자인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이 단말기를 개발한 업체는 바로 아이트로닉스(대표 이승훈 [www.itronics.co.kr](http://www.itronics.co.kr))였다. 아이트로닉스의 단말기는 무려 39개국에서 출품된 2808개 제품 가운데 디자인상을 받은 802개의 제품에 당당히 포함된 것이다.

지난 2000년 5월 설립한 아이트로닉스는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 없이 디지털화해 하드디스크에 바로 압축·저장하는 DVR시스템으로 유명한 업체다. 이 분야에 기술이 축적되면서 2007년부터는 새로운 성장동력에 지상파 DMB 모듈을 추가했다. 경쟁사와 차별화를 위해 커스터마이징에 초점을 맞췄던 아이트로닉스는 다시 국내 최고

의 지상파DMB 모듈 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 외부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량 기술기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기업', 산업자원부로부터 '부품·소재 전문 기업'으로 각각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말 아이트로닉스는 또 다른 변신을 시도했다. 하이패스 단말기 분야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뛰어들지 불과 1년 만에 아이트로닉스가 내놓은 단말기 '아이패스(iPASS)'는 최단기간에 하이패스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하이패스=아이패스'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낼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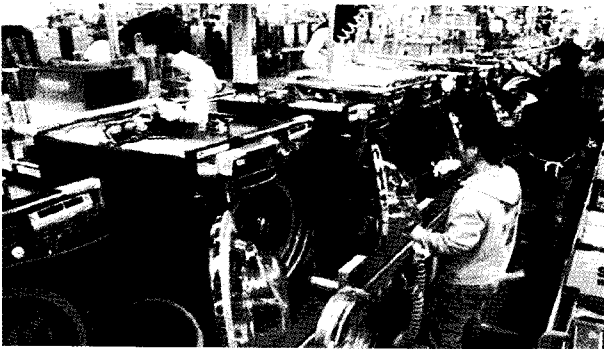
특히 지난해 9월 출시한 '아이패스 미니(ITE-200)'는 아이패스라는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다. 출시 후 5개월 만에 전체 하이패스 단말기시장에서 판매 선두를 달릴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반응에는 이유가 있다. 이 제품은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무배선 충전 방식을 채택했다. 충전을 위해 시가책에 연결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깔끔한 설치가 가능하다. 또 음성안내와 고휘도 OLED, 알루미늄 보디, 무드램프 기능 등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 안의 인테리어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제품은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올해 최고 인기 단말기로 시장을 누비고 있다.

국내에서의 평판은 해외로 이어져 ITE-200은 결국 독일 IF디자인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이다. 심사에서 아이패스는 제품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재료, 기술혁신, 친환경성, 기능성, 내구성, 안정성 등 제품 전반에 걸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이트로닉스가 스스로를 가리켜 제시하는 강점은 세 가지다. 기술 선도형 중소기업, 전문화된 영업시스템 보유,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기술 분야에서 아이트로닉스는 자신감을 보인다. 전 종업원 수 대비 50% 이상이 개발인력이라는 점이 증명한다. 이를 통해 현재 ETCS 단말기-시스템 설계 기술, ASIC 설계 기술, 디지털 영상 처리기술, RF 설계 기술 등을 자체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화된 B2B·B2C 복합 영업 시스템도 독보적이다. B2B 고객별 전담 기술지원 요원 배치와 B2C 유통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세일즈파트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아이트로닉스만이 내세우는 장점이다. 이 밖에 TL9000/ISO9001 인증 보유와 품질관리 노하우는 아이트로닉스가 경쟁업체의 부러움을 사는 또 다른 요인이다.

### LG전자, 불황 속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 1위 고수



- 2007년~2008년 2년 연속 미국 드럼세탁기시장 1위 유지
- 미국 경기 불황 속 시장점유율 확대, 평균판매가격도 선두 기록
- 2위 월풀 하향세 지속, 2002년 이후 분기 점유율 최저 수준 추락

LG전자가 지난해 미국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LG전자는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지난 4분기 매출액 기준 24.3%, 판매량 기준 21.1%를 기록했다. 4분기 LG전자 드럼세탁기 평균판매가격도 885달러로 선두에 올랐다. 이로써 LG전자는 2007년 연간 매출액 점유율 22.9%에서 2008년 24.7%로 확대해 미국 경기침체 기간에 오히려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다.

반면 2위 월풀(Whirlpool)의 하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매출액 점유율은 3분기 대비 2.6% 떨어진 15.4%를 기록 2002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LG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한 가로 16.9인치(약 43cm) '스퀘어 도어'를 적용한 4.5큐빅피트(cu.ft, 한국 기준 17kg)의 대용량 드럼세탁기를 내세워 11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차지했다. 또 판매가 600~1,100달러의 합리적 구매고객층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을 통해 이 가격대 시장에서도 선두를 지켜 600달러 이하 저가 시장 외 모든 영역을 석권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 세탁기 시장은 전자동 세탁기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7% 가량 소폭 감소했으나, 드럼세탁기 판매는 7% 성장하며 전체 세탁기 시장의 36%를 기록했다.

LG전자 세탁기사업부장 조성진 부사장은 "지난 연말부터 경기침체 가속화로 미국 가전시장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LG전자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기존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합리적 소비층으로 타겟 고객층을 확대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세계 최초 LTE 단말 무선 전송 시연**  
LG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09'에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 단말 무선 전송에 성공함으로써 4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을 이어갔다.

LG전자는 부스 내 '첨단 테크놀로지 존(Frontier Technology Zone)'에서 LTE 단말 모뎀 칩이 내장된 USB 동글(Dongle) 형태의 LTE 데이터카드를 무선 환경에서 노트북, 넷북, MID(Mobile Internet Device)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장착해 시연했다.

LG전자는 HD급 고화질 영화 2편을 동시 전송해 화면 왜곡이나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한 화면에서 동시 상영하는데 성공해 현장의 업계 관계자와 관람객들에게 LG전자의 4G 이동통신 기술력을 각인시켰다.

LTE 서비스는 이동 시 최대 하향 100Mbps(Mega bit per second), 상향 50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 휴대폰을 통해 영화 한편 (700MB)을 단 1분 안에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히, LG전자는 이날 '임의의 실험실 환경' 아닌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실제 주파수 대역, ▲ LTE 모뎀칩이 내장된 데이터카드 단말기, ▲ 하향 60Mbps, 상향 20Mbps 전송속도라는 '3대 LTE 상용 서비스 조건'을 완벽히 갖추며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플

레이어로서의 행보를 재촉했다.

실제로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형태보다는 데이터카드 단말기를 매개로 위와 같은 전송속도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을 통한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 증대에 중점을 두고 LTE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현재 북미, 유럽, 일본의 메이저 이동통신사와 내년 LTE 상용화를 위한 다각도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시연을 위해 알카텔-루슨트, 노텔 등 세계 유수의 기지국 장비업체들과 성능검증 작업 및 테스트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밖에 LG전자는 MS 윈도우 모바일 OS를 탑재한 MID 단말기에서 고화질 동영상을 다운로드해 실시간 재생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시연에도 성공, 실제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완벽히 구현되는 성능을 선보였다.

LG전자 MC사업본부 안승권 사장은 "4G 후보기술 중 현재 3GPP LTE 진영이 가장 유력한 만큼 LG전자는 이 분야에서 한발 앞선 시장 대응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는 세계 LTE 휴대폰 시장 규모가 2012년 7,180만대에서 2013년 1억 4,970만 대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애널리틱스 메이슨(Analysis Mason)은 201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4억 4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LTE 서비스가 4세대 이동통신의 주류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